

# '5.16 민족상 수상이 외부 용역 수주로 연결돼'

## -5.16 민족상과 주택공사 전산화-

### 안문석

#### 1. 서론

1979년은 성기수 박사에게도 바쁜 한 해였다.

당시 KIST 소장은 고인이 되신 천병두 박사였다. 천 소장은 취임하면서부터 열심히 뛰어 다니면서 연구예산을 따오셨고, 연구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각종 상에 연구원을 적극적으로 추천하시는 등 모든 면에서 열과 성을 다하셨다.

천 소장의 KIST 경영철학은 본질적으로 최형섭 초대 소장과 같은 것이었다. 따라서 외부 연구 용역에 대해서 대단히 적극적으로 후원을 해 주셨다. 이런 분위기에서 외부 용역을 많이 하던 전산실은 자연스럽게 천 소장의 관심을 끌게 되었다.

이렇게 해서 추진된 것이 전산실을 맡고 계셨던 성기수 박사를 5.16 민족상에 추천하는 일이었다.

#### 2. 추진 경과

천 소장은 성기수 박사를 5.16 민족상 심사위원회에 추천하면서 당시 부소장이었던 박원희 부소장에게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지시했던 것 같다. 공적 조서는 안문석 박사가 소장의 지

시로 작성하였다.

박 부소장은 5.16 민족상 심사위원회를 방문하는 등의 활동을 했던 것으로 기억된다. 그러나 박 부소장의 보고는 비판적이었던 것 같다.

어느 날 천 소장은 안문석 박사를 소장실로 부른 후, 5.16 민족상 심사위원회에 같이 갈 것을 지시하였다. 심사위원회에서 안문석 박사는 성기수 박사의 공적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였다. 설명이 성과가 있었던지 밖에서 기다리시던 천 소장이 대단히 밝은 얼굴이 되었고 두 사람은 KIST로 돌아왔다.

성기수 박사는 학술부문의 수상자로 발표되었고, 그 해 5월과 6월은 성기수 박사에게는 대단히 바쁜 시간이 되었다. 성기수 박사의 5.16 민족상 수상은 KIST 전산실의 외부 용역 수주에도 플러스 효과를 가져왔다. 그 가운데 하나가 주택공사 설계업무 전산화 연구이다.

축하를 겸해서 KIST를 방문한 당시 주택공사 사장이었던 양택식 사장은 주택공사 전산화 업무, 특히 설계업무의 전산화에 KIST가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. 이것은 그후, 우리나라 최초의 설계업무 전산화 연구로 연결되었다.

이 연구는 안문석 박사가 주관을 하였다. 안문석 박사는 신동필 팀장에게 이 일을 맡겼다. 이 연구에는 그후 청와대 경제비서실에서 과학담당을 맡고 있던 홍성원 박사(당시 육사 교관)도 위촉연구원으로 참여하였다.

주택공사 설계업무 전산화는 성공적으로 추진되어, 설계용 전산실이 독자적으로 설립·운영되었다. 이 연구의 특징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설계업무를 터미널을 이용하여 수행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CAD 연구였다는 점이다.

이 시스템은 지금도 주택공사에서 잘 운영되고 있다.